



[시장동향]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2027년까지 연평균 5.6% 성장 전망

- 기능성 식음료와 건강보조식품은 물론 가축 사료 수요 증가로 시장 확대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로바이오틱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2027년까지 연평균 5.6%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시장조사연구기관인 Meticulous Research는 프로바이오틱스의 건강학적 효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수년간 프로바이오틱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장 건강은 물론 면역력 강화를 목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일본의 야쿠르트 혼샤(Yakult Honsha)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3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매출이 1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식음료와 건강보조식품은 물론 가축 사료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활용한 제품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finance.yahoo.com, 9월 29일 >

[낙농경영] 美 낙농가 협회, '찾아가는 목장체험' 운영

- 소비자들 대상 낙농업에 대한 이해력 증진 목적



미국 켄터키 사우스랜드 낙농가 협회가 낙농업에 대한 이해력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목장체험'을 운영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에, 지난 29일에는 세계 학교우유의 날을 기념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목장에서 식탁까지 우유 및 유제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낙농가들의 노력을 보여주고 우유의 영양학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체험 프로그램은 학교는 물론 지역 행사와 박람회 등 신청자에 한해 무료로 운영 중이며, 저지중 젖소를 싣고 동영상 강의를 위한 스크린과 음향장비를 갖춘 트레일러를 활용하여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wbko.com, 9월 30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